

3代 이어 한식기와 제조 백제문화 맥 잇다



호남권 유일의 전통 한식기와 맥을 이어오고 있는 동부산업(주) 박문환 대표. /구례=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산단 우수기업을 가다 <3> 구례 동부산업(주)

전남도지사 공관, 구례 운조루, 사성암, 천은사 일주문, 장성 백양사,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성북동 한옥단지, 드라마 신촌 세트장, 산동 문화관광형 시장... 이들 지와지보 모두 동부산업(주) 건축 시공한 작품이다.

구례 간전농공단지 입주한 동부산업은 호남 및 백제권 유일의 전통 한식기와 제조업체다. 해방 직후인 1946년 창업, 구례에서 71년간 한식기와를 제조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중소기업이다.

할아버지 박용수 초대 사장이 화암사 인근 마산면에 설립한 '마산기와공장'이 모태다. 당시는 운반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탓에 '질 좋은 점토'가 출토되는 마산면 현지에 공장을 세웠다고 한다. 1965년 아버지 박상표 사장이 승계했다가 1990년 박문환 대표가 물려받아 지금의 간전농공단지로 옮겨오면서 사명도 동부산업으로 바꿨다.

"3대가 70여년간 이어 온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맥을 잇고 있다"고 박 대표는 자부했다.

동부산업은 한식기와의 기본이 되는 암기와 수기와는 물론 사용 위치에 따라 내림새·막새·보습장·작고막이·옹 두·치미 등 갖가지 기와를 생산하고 있다. 직원은 20여명으로, 2014년 9명에서 2배이상 늘었다. 연 매출은 30억원 규모다.

동부산업의 생존 비결은 기술개발이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수작업으로 기와를 구웠지만, 박 대표는 기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세계 100여개국의 기와공장을 견학하며 기술을 닦았다. 그리고 내놓은 것이 '터널킬른'이다. 특허명은 '전통탄화 전외류 제조 방법'이다.

이는 세계 최초 터널식 가마 시스템으로, 기존 한식기와 제조 방식인 '서틀킬른'(단가마)의 틀을 과감히 깨고 '터널킬른'(터널가마)으로 전환한 혁신 기술이다. 기존에는 단가마인 탓에 24시간 불을 지핀 뒤 이후 48시간 냉각해야 한다. 냉각을 위해 산소 공급을 차단, 불을 끈다. 불을 지피고 끄는 것을 반복해야 하니 그만큼 시간과 연료가 많이 든다.

그러나 터널식 가마는 불이 지퍼 있는 상태에서 기와를 이동시켜 냉각한다. 이는 60% 이상 연료절감을 가져왔고, 시간도 줄여 생산량을 늘렸다. 그는 앞으로 원가 절감과 제품 균일화를 위해 '로봇'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 대표는 "국내 모든 한식기와 생산업체가 서틀킬른을 사용하지만, 동부산업은 과감히 그 틀을 벗어나 터널킬른 방식을 고

1946년 창업 71년 전통 ... 연매출 30억 규모 세계 최초 터널식 가마 도입 연료비 60% 절감



동부산업(주)에서 제작한 한식기와로 시공된 전남도지사 공관 모습.

안했다"며 "제품을 가마 안에서 회전시키며 굽는 터널킬른 방식을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보다 고온 색상의 기와를 다양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이같은 노력 덕분에 동부산업은 특허 4건, 디자인등록 4건의 지적재산을 갖게 됐다. 또 전남도와 중소벤처부는 동부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

동부산업에서는 하루에 한옥 2동 건축할 분량의 기와를 만든다. 제조공정이 까다롭다보니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것이다. 수요가 없는 탓도 있다.

박 대표는 주거문화가 아파트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콘크리트 데미에 갇히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다움'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시골뿐만 아니라 경관 좋은 곳들이 콘크리트로 덮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한옥 보급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한옥 보급은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 한옥 기술자를 육성할 수 있으며, 미래 관광산업의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전통 한식기와에 관심을 더 보이는 것 같다고 씩씩해 했다. 호주·미국·러시아 등에서 한식기와에 관심을 보이면서 조만간 해외 진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표는 "한국 고유의 주택인 한옥을 단지화하면 관광자원이 된다. 정책적으로 한옥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례=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엔유비즈 '스마트 앙케트' 서비스 개발

실시간 실태조사 스마트워크 플랫폼 이달말 제공

공공데이터 및 공동체 솔루션 전문업체인 (주)엔유비즈가 실시간 실태조사 스마트워크 플랫폼인 '스마트 앙케트(Smart-ENQUETE, www.enquete.co.kr)' 서비스를 개발, 11월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워크란 재택근무·이동근무 등 온라인 원격근무와 사업장 간 또는 사업장 내의 원격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무 형태를 말한다.

엔유비즈는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공모한 '2017년 스마트워크 서비스 확산 지원 사

업' 중 지역특화형 스마트워크 부문에 선정돼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 앙케트(Smart-ENQUETE)' 서비스는 조사원 신청부터 항목 설정, 온·오프라인 조사, 조사결과 집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시스템화돼 기존 수작업에 비해 업무 편의성과 생산성, 효율성이 극대화된 것이 특징이다.

조사업체가 '스마트 앙케트(Smart-ENQUETE)'를 통해 해당지역 조사원을 선정하고, 업무를 배정하면 조사원이 GPS,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보다 편리하게 대상 업체에 방문, 태블릿PC를 이

용해 조사항목을 입력한다.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조사업체는 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조사의뢰 자체는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엔유비즈는 전국 최초로 경남 김해에서 진행 중인 '2017년도 제조업체 실태조사' 업무에 적용하기도 했다.

엔유비즈 이보현 대표는 "스마트 앙케트(Smart-ENQUETE)는 기존 서면출장 조사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간접비용을 줄이고, 현장에서 윈스톱으로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삼성전자의 무선청소기 '파워퀵' 독·영 공인 기관 인증 획득

미세먼지·알레르기 차단

삼성전자의 무선청소기 '파워퀵'(사진)이 독일 국제 공인시험 기관 SLG(Schubert Leiter Geratesicherheit)와 영국 알레르기 협회 BAF(British Allergy Foundation)로부터 미세먼지·알레르기 차단 테스트를 거쳐 최고 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파워퀵은 5중 청정 헤파시스템을 탑재해 SLG 테스트에서 미세먼지를 99.999% 차단하며 '먼지 차단 능력 인증(Dust retaining capability)' 최고 등급인 5 Stars(Excellent)를 획득했다.

또 파워퀵은 BAF의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균 등 5개 항목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배출 차단 평가를 모두 통과하며 '알레르기 UK(Allergy UK)' 인증도 받았다.

파워퀵은 ▲사이클론 시스템 ▲이즐린 필터 ▲워셔블 필터 ▲마이크로 필터 ▲헤파 필터로 이뤄진 5중 청정 헤파시스템을 통해 먼지를 차단, 미세먼지까지 99.999% 걸러진 깨끗한 공기만 배출해 사용자의 건강을 배려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내 공기질을 좌우하는 청소기 필터 시스템도 소비자들로부터 중요한 구매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전문 시험 기관들의 확실한 인증을 통



해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수소연료전지 2차 기초교육' 참가자 모집합니다

광주창조혁신센터·호남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호남대학교와 공동으로 광주지역 수소연료전지 2차 기초교육 참가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소연료전지 전문가 2명을 강사로 초빙해 수소 연료전지 기초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이 '친환경 미래 자동차'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및 수소융합스테이션 견학, 수소전기차 시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총 3일

간에 걸쳐 호남교 광산캠퍼스 창조관 강의실 및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되며, 교육생 모집은 16일 선착순 마감한다.

교육신청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https://ccei.creativekorea.or.kr/gwangju/) 공지사항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수소연료전지 교육은 매년 광주 지역 수소 관련기업 및 엔지니어, 대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분야 창업 및 수소산업 확산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1회차 교육은 6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총 31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문의 062-974-9361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최공섭 남평농협조합장 대통령상

남주 남평농협 최공섭(사진) 조합장이 지난 10일 제2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최 조합장은 흙 살리기 운동 등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로 1996년 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와 농업인단체 등이 중심이 돼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최공섭 조합장은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전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